

- 주요 뉴스: 11월 FOMC 의사록,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점진적인 금리인하가 적절
 - 미국 트럼프 당선인, 내년 취임 직후 중국·멕시코·캐나다에 관세 인상 부과
 - 이스라엘 안보 내각, 헤즈볼라와의 휴전안 승인. 이란 위협에 좀 더 집중
 - ECB 권도스 부총재, 경제 전망 정확하다면 추가적인 금리인하 가능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트럼프의 관세 부과 예고, 이스라엘-헤즈볼라 휴전 합의 등이 영향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예상에 부합한 FOMC 의사록, 중동 긴장 완화 기대 등이 반영
유로 Stoxx600지수는 자동차 부문 중심으로 매도 증가하며 0.6%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주요 교역국에 대한 관세 부과 전망 등으로 상승
유로화 가치는 0.1% 하락, 엔화 가치는 0.8%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관세 부과에 따른 인플레이션 재반등 가능성 등이 배경
독일은 ECB의 12월 금리인하 예상 등으로 2bp 하락

※ 뉴욕 1M NDF 증가 1396.5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397.7원, 0.11% 상승). 한국 CDS 강보합

		11/26일	11/25일	전일대비			11/26일	11/25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6,021.6	5,987.4	+0.57%	국채 금리 10y	미국	4.31%	4.27%	+3bp
	유럽	505.90	508.78	-0.57%		독일	2.19%	2.21%	-2bp
	중국	3,259.8	3,263.8	-0.12%		영국	4.35%	4.34%	+1bp
	일본	38,442	38,780	-0.87%	CDS 5y	한국	34bp	34bp	+0bp
	한국	2,520.4	2,534.3	-0.55%		중국	64bp	63bp	+1bp
환율	달러지수	106.88	106.82	+0.06%	위험 지표	EMBI+	-	371	-
	유로화	1.0489	1.0495	-0.06%		VIX	14.10	14.60	-3.42%
	엔화	153.08	154.23	+0.75%		WTI유	68.77	68.94	-0.25%
	위안화	7.2502	7.2462	-0.06%	원자재	구리	404.9	410.0	-1.24%
	원화	1,396.1	1,399.0	+0.21%		금	2,633.2	2,625.0	+0.31%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11월 FOMC 의사록,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점진적인 금리인하가 적절

- 11월 FOMC에서 다수의 위원들은 공화당의 대선 승리, 생산성 향상, 인플레이션 완화의 정체 등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으로 향후 금리인하를 점진적 형태로 추진해야 한다는 신호를 발신
- 특히 위원들은 예상보다 강력한 미국의 경제 성장과 양호한 노동시장 등으로 중립금리 수준에 빨리 도달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 12월 FOMC에서의 금리인하를 반대하는 위원은 한 명도 없었으나, 파월 의장과 보우먼 이사 등은 금리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
- 한편 시장에서는 연준이 양호한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 완화 정체 등을 반영하여 향후 정책 결정에서 많은 선택지가 있음을 보여주기를 원한다고 평가(Nationwide). CME의 FedWatch Tool에 따르면, 향후 3회의 금리인하(금년 12월, 내년 5월 및 10월, 각 0.25%p)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트럼프 당선인, 내년 취임 직후 중국·멕시코·캐나다에 관세 인상 부과

- 트럼프 당선인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내년 취임 당일(1/20일)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에도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 이는 펜타닐 등의 마약과 외국인들의 불법 이민이 멈출 때까지 유효하다고 강조
- 이와 관련하여 중국의 주미 대사관 측은 양국 간 무역이 본질적으로 호혜적이며 무역전쟁 혹은 관세전쟁의 승자는 없다고 발표. 멕시코의 세인바움 대통령은 보복 관세로 대응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 캐나다 트뤼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긴급 통화를 갖고 주요 사안에 대해 우호적 논의를 가졌다고 언급

■ 미국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12월 0.25%p 금리인하 검토는 당연

- 카슈카리 총재는 노동시장이 견조하지만 전반적인 경기 및 인플레이션에 하방 압력이 존재하기에 12월 FOMC에서 0.25%p의 금리인하를 고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언급. 한편 시카고 연은의 굴스비 총재는 중립금리에 다가가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금리인하 속도 조절이 적절하다는 의견 피력

■ 미국 11월 소비자신뢰지수, 전월비 상승. 10월 신규주택 판매는 2년래 최저

- 11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는 111.7로 전월(109.6) 대비 상승하면서 '23년 7월 이후 최고치 기록. 이는 최근의 주가 상승과 양호한 노동시장 여건에 기인. 한편, 10월 신규주택판매는 61만채(연환산)로 전월(73.8만채, 연환산) 대비 급감. 이는 모기지 금리의 재반등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

■ 이스라엘 안보 내각, 헤즈볼라와의 휴전안 승인. 이란 위협에 좀 더 집중

- 안보 내각은 헤즈볼라와의 휴전을 최종 승인. 네타냐후 총리는 향후에 이란의 위협에 좀 더 집중하고, 가자지구에서 하마스를 고립시킬 것이라고 강조. 일부에서는 이번 결정이 양측 간 종전을 유도하기 위한 전단계로 해석

■ ECB 권도스 부총재, 경제 전망 정확하다면 추가적인 금리인하 가능

- 인플레이션 등 기존의 경제 전망에 큰 변화가 없다면,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예상된다고 발언. 향후 금리인하는 결국 인플레이션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 한편 렌 위원 역시 최근의 경제 성장 및 인플레이션 전망을 고려한다면 다음 정책행보는 금리인하가 될 것이라고 언급

■ 일본 이시바 총리, 재계 대표들에게 큰 폭의 임금인상을 요청

- 경제계 및 노동자 단체 대표들과의 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임금 협상에서 금년과 같이 높은 수준의 임금인상 타결이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발언. 여타 정부 인사들도 물가 상승률을 넘어서는 수준의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

■ OPEC+, 감산 축소 시기 논의할 계획. 일부에서는 연기 가능성도 제시

- OPEC+의 주요국들은 예정대로 1월 감산 축소를 시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를 시작. 다만 일부 국가에서는 향후 글로벌 공급 과잉이 전개될 수 있다는 신호가 있다면서 감산 축소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늦춰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11/27 현지시각 기준)

- 미국 10월 PCE 물가 및 3/4분기 GDP, 10월 개인소득 및 지출
- 미국 10월 내구재 수주 및 무역수지, 11월 4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

미국 대선 이후 주요 동향 및 해외시각

■ [주요 동향] 트럼프, 중국·멕시코·캐나다 관세 부과 예고, 북한과의 대화 추진 검토

- **트럼프, 중국·멕시코·캐나다에 관세 예고** :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의 펜타닐 규제 미흡을 근거로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 아울러 불법 이민 및 펜타닐 남용 조장을 사유로 멕시코와 캐나다산 수입품에 25% 관세 부과를 위한 행정명령 서명 계획을 발표
 - 중국 주미 대사관의 류펑위 대변인이 무역전쟁에서는 승자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 멕시코 세인바움 대통령은 관세 인상이 양국의 인플레이션 및 실업률을 악화시킬 것 것이라며 보복 조치 가능성을 시사. 반면 캐나다 트뤼도 총리는 트럼프와 건설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며 비교적 온건한 입장
 - 한편 이러한 정책에는 캐나다·멕시코산 원유 수입도 포함될 전망. 이에 석유 및 가스 업계는 이 정책이 미국의 에너지 패권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
- **트럼프 인수위, 김정은과 직접 대화 추진 검토** : 북한과의 무력 충돌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직접 대화를 포함한 새로운 외교적 방안을 검토 중. 다만 최종 결정은 미확정
- **정부효율부 수장, 반도체 보조금 조사 예정** : 라마스와미 공동 수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정권 이양 전 반도체 산업 지원금 집행을 서두르고 있다고 비판. 이에 관련 계약들의 타당성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
- **트럼프 당선인, AI 차르 임명 고려 중** : 백악관 내에서 AI 정책과 활용을 총괄하는 AI 차르(Czar) 임명을 고려하는 가운데, 머스크가 상당한 영향력 행사할 것으로 예상

■ [해외시각] 트럼프의 관세 부과 발표, 산업계 우려 및 시장 변동성 확대 초래 예상

- **트럼프 관세정책, 산업계 우려를 초래** :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 재계에서는 우려를 표명했으며 특히 자국 자동차 및 에너지 산업에 큰 타격이 예상. 이에 대응해 다국적 기업들은 통화 옵션, 스와프 등 다양한 환헤지 전략을 강화(Reuters)
- **트럼프 당선인의 예측 불가능성, 시장 변동성을 확대** : 트럼프의 관세 부과 발표는 정책 결정의 예측 불가능성과 독단성을 시사. 이에 시장 친화적인 베센트 재무장관 지명자의 영향력이 제한될 소지. 특히 트럼프의 경제정책 결정권과 공화당의 영향력을 고려할 경우, 불확실성으로 인한 시장 변동성 확대가 예상(Financial Tim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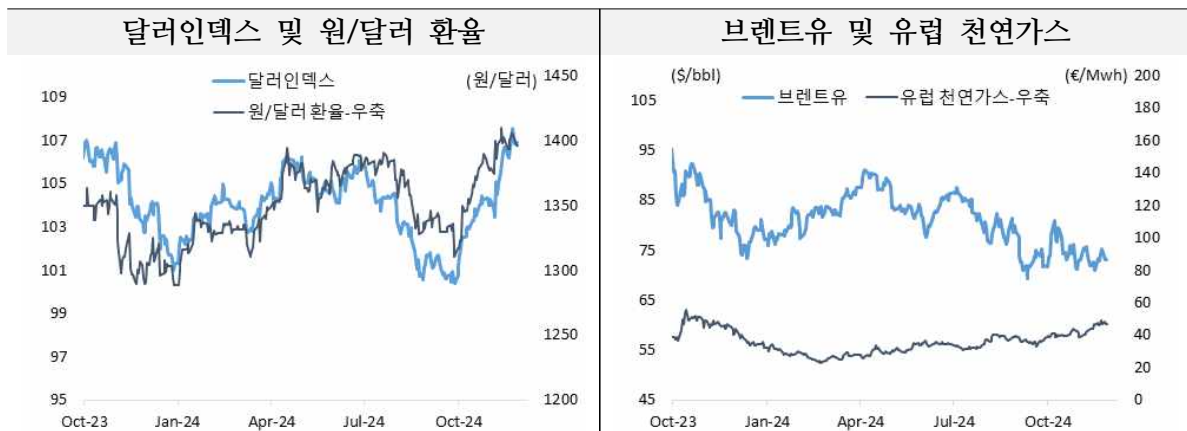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부과 발언, 강한 의지 표현으로 해당국 피해 예상 - The Economist**
(Trump wastes no time in reigniting trade wars)
 - 트럼프는 취임 직후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수입 관세, 중국에는 10% 추가 관세 부과를 천명. 이에 외환시장에서는 멕시코 페소화와 캐나다 달러화가 모두 평가 절하되며 즉각 반응. 중국 위안화의 환율은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달러당 7.4위안)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Nomura)
 - 한편, 이러한 관세 부과 예고가 현실화되면 멕시코와 캐나다는 구조적으로 회피 방법이 제한적. 이는 대부분의 생산품이 자국에서 직접 육로를 통해 미국으로 수출되기에, 이를 우회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어렵기 때문. 반면 중국은 예상보다 낮은 관세로 상대적으로 충격이 작을 것으로 판단
- **트럼프 신정부의 관세 정책, 고용 등을 고려한 새로운 접근 필요 - Financial Times**
(How Trump should impose tariffs)
 -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를 부과하는 명시적 이유는 자국 내 일자리 보호. 하지만, '18년의 경우 철강과 자동차 부품 등 수입산 중간재에 대한 관세 인상은 완제품 가격 상승을 초래했고, 결과적으로 일자리 감소를 초래
 - 또한 고부가가치 제조업 지원이 목표라면, 관세 부과가 도움이 되지만, 기본 소재에 대한 관세 부과는 결국 비용 증가를 유발. 완제품보다 투입물에 대한 관세에서 더 심각한 비용 증가가 발생. 이에 효과적인 관세 부과 설계 방안을 마련할 필요
- **미국 머스크의 2조달러 정부 지출 감축 의지, 예산 구조상 현실성이 부족 - WSJ**
(Musk Wants \$2 Trillion of Spending Cuts. Here's Why That's Hard.)
 - 정부효율부 수장에 지명된 Tesla의 머스크 CEO는 2조달러 규모의 재정지출 삭감 의지를 피력. 하지만, 작년 6.75조달러 규모에 이르는 예산의 구조를 고려하면, 이는 현실적으로 실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 우선, 삭감이 어려운 건강보험 및 사회보장 부문의 의무적 지출과 이자지급 비중이 전체의 3/4을 차지
 - 이에 의회 승인이 필요한 재량적 지출을 줄여야 하는데, 여기에도 삭감이 어려운 국방 예산(0.85조 달러)이 상당한 규모로 배정. 결국 비국방 재량 지출(재향군인 혜택 등 10개 분야 0.95조 달러)에서 감축이 가능한데, 이는 전체 예산의 14%에 불과. 아울러, 필요한 예산은 전반적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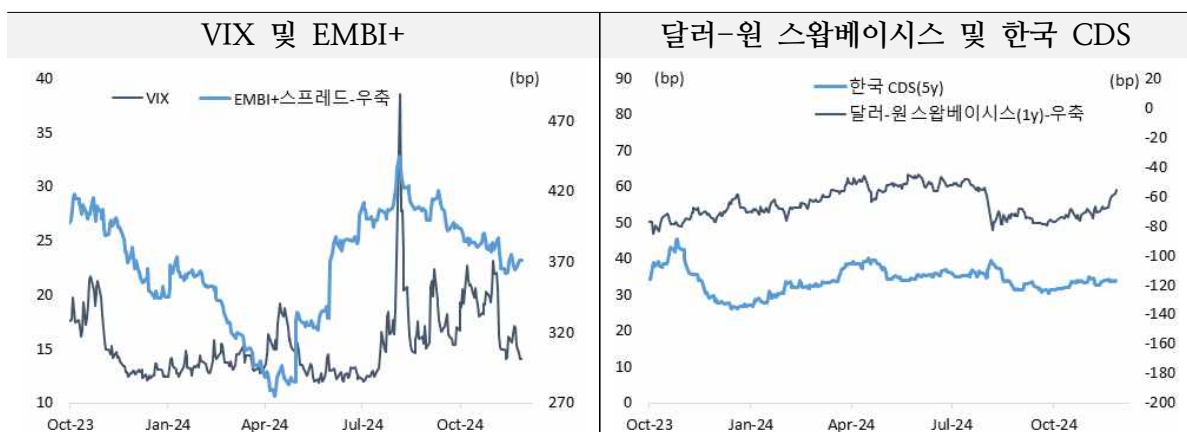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